

≡ 뉴스 기획 연재 오피니언 PR마당 지난연재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법보신문

전체기사 구독신청 광고문의

사성암, 지리산 자락서 음악한마당 펼쳐

신용훈 호남주재기자

+ - 🖨️ ↺️

교계 입력 2021.10.08 20:30 수정 2021.10.08 21:27 호수 1604 댓글 0

10월2일 사성암 주차장서
타악기·판소리·춤 등 공연



10월1일 승보종찰 송광사를 출발한 삼보사찰 천리순례 순례단은 '삼보를 참배하고 중생을 아우르고'라는 주제로 전법과 포교, 세상과 어우러지는 불교를 염원하는 만행결사 두 번째 대장정을 이어 가며 10월2일 약사여래 기도도량 사성암에 도착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 순례단'은 사성암 주차장에 텐트를 치고 사성암 유리광전 약사여래 부처님을 참배했다. 이후 사성암(주지 우석 스님)은 '길 위에서 길을 찾다'란 주제로 지리산 산자락에서 사성암 음악회를 진행했다.

NH농협은행 301-0189-0372-01
KB국민은행 023537-04-004063

최신뉴스

더보기 >

교계

대법원, “조계종노조 징계 부당하다”
판결



한마음과학원, 제6회
학술세미나 열려

2001년 중단된 '뇌허불교학술상'...20년 만에 ...
제2회 윤강명상학술상 이영진, 하현주 수상...1...
불교문예연구소, 제18차 학술대회 개최
군종교구장 선일 스님 '사유하는 기쁨' 출간...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 소집...‘정청래 의원...
[천리순례 18일차] 423km 64만 발걸음 옮겨 ...
함박종합사회복지관, 개관 2주년 기념 인연이...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노인의날 기념식 국무...

연재

< >

세심청심

차별없이 내리는 비



나의 발심수행

다라니기도 김준우(48, 법성)...



최명숙의 일상의 발견

17. 안동 봉정사 단상





먼저 섬진강을 낙조를 뒤로한 정자에서 이재일 배지성의 법고연주와 태평소 연주로 음악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아리랑을 현대적으로 창작한 노래와 타악기 연주가 이어졌다. 또 윤지원 국악인이 지리산과 부처님 이야기에 삼보사찰 순례단 이야기를 더한 판소리로 불교발전과 희망을 이야기하며 원만회향을 기원했다. 또 순례단의 의지를 다지고 길을 떠나는 노래인 '길을 떠날 때'와 '광야 - 길 위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한 춤과 노래를 선보이며 순례단의 피로를 풀어줬다.



“천리순례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다”고 말한 사성암 주지 우석스님은 “21일 순례기간 동안 약사여래 특별기도를 시작해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원만하게 회향하기를 기원하겠다”며 앞면에는 사성암의 원불인 약사여래 부처님이, 뒷면에는 삼보사찰 천리순례가 새겨진 옥돌을 순례단 전원에게 전달했다.

신용훈 기자 boori13@beopbo.com

[1604호 / 2021년 10월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무진등

마하의료회장 김정순 약사



이제열의 소리를 관하다

35. 지옥의 소리-상



많이 본 뉴스

- 01 광주시, '가톨릭 순례길' 조성사업 공식 사과...“전면 재검토”
- 02 [천리순례 12일차] 새벽부터 세찬 비바람 맞으며 다시 27km 전진
- 03 정청래 의원, 문화재관람료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매도
- 04 미디어오늘, 불교계 언론보도 왜곡하나
- 05 근현대 불교 이끈 구하·한암 스님 조명...“역사 바로세워 자부심 높일 것”
- 06 조계종 “불교계 사기꾼으로 매도한 정청래 의원 공개 참회하라”
- 07 오대산 정취와 뮤지컬을 한눈에...“사찰 뮤지컬”이라는 장르 탄생
- 08 [천리순례 9일차] 화엄의 바다, 법보종찰 해인사에 들다
- 09 [천리순례 14일차]사부대중, 한국불교 위기극복 위해 머리 맞댔다
- 10 봉은사 개산대제, 지역문화예술축제로 업그레이드



당신의 1만원, 2명에게 새 삶이 됩니다

교도소·병원·군법당에 신문 보내기

010-4655-7010로 문자 '법보시'를 보내주세요



저작권자 ©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0개의 댓글

작성자

비밀번호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될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 작성이 간편합니다.

0 / 400

등록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① BEST댓글

매체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대표전화 : 02-725-7010 팩스 : 02-725-7017
법인명 : ㈜법보신문사 제호 : 법보신문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등록일 : 2005-11-29 발행일 : 2005-11-29
발행인 : 김형규 편집인 : 이재형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규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
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
합니다.

Copyright © 2021 법보신문.
All rights reserved.